5·3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인물·정책 검증

장흥·보성·강진 군수

■ 장흥군수

	김점중 (47) 우리당
현직	정당인
학력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주요경력	전남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
병역	병장 만기 제대
재산	11억원
주요공약 (3가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사업발굴과 종합관광개발사업추진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정책의 획기적 개혁 -노령화사회를 준비하는 선진복지 구현

	김 성 (47) 민주당
현직	정당인
학력	조선대 대학원 행정학과
주요경력	민주당 장흥군 지역위원장
병역	소집 면제
재산	1억3천만원
주요공약 (3가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 -문화, 휴양,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

	김인규 (52) 무소속
현직	장흥군수
학력	서울대 법과대학
주요경력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병역	육군 대위 만기전역
재산	12억1천987만7천원
주요공약 (3가지)	-생산, 가공, 유통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혁신 농촌건설 -맞춤식 건강휴양공간 조성, 웰빙을 위한 산업육성 -SOC 사업의 조기 준공

	백광준 (55) 무소속
현직	장흥군 의원
학력	남도대 관상원예과
주요경력	장흥국책사업 유치위원장
병역	의가사 면제
재산	1억5천만원
주요공약 (3가지)	-국책사업 유치 -장흥~회진 4차선 도로개설 -노인종합실버타운 건설

	황정렬 (50) 무소속
현직	언론인
학력	방송통신대 법학 중퇴
주요경력	전남매일기자
병역	병장 만기 제대
재산	신고사항 없음
주요공약 (3가지)	-민·관 합작 전문유통공사 설립 -복합가공공장 건립 -소외계층 복지지원 확대

■ 보성군수

	정종해 (59) 민주당
현직	정당인
학력	중앙대 행정대학원
주요경력	기획예산처 부이사관
병역	일병제대
재산	13억원
주요공약 (3가지)	-농업 육성 -노인들의 복지 -교육환경개선

	하승완 (55) 무소속
현직	보성군수
학력	조선대 대학원
주요경력	변호사, 조선대 겸임교수
병역	소집면제
재산	5억5천976만원
주요공약 (3가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시대적 조류에 적극적 대처 -소각로, 콘도미니엄, 골프코스 조성 등 투자유치활동 전개 -녹차를 가공, 판매 등 6차산업으로 성장

	김종표 (59) 한미준
현직	(주)기전윈텍회장
학력	조선대 교육대학원
주요경력	전남투자유치자문관
병역	병장 만기 제대
재산	파악중
주요공약 (3가지)	-12개 읍면에 2~3만kw급 태양광열 풍력발전소 건설 -벌교천 수상 관광사업 및 레저형 종합스포츠 레저타운 건설 -전통문화(한과, 기능보유자, 삼베 등) 단지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 강진군수

	황주홍 (54) 민주당
현직	강진군수
학력	미 미주리대 정치학박사
주요경력	민주당 강진·완도위원장
병역	육군 일병(소집해제)
재산	8억2천448만3천원
주요공약 (3가지)	-관광산업 및 스포츠마케팅 강화, 사회복지안전망 구축 -공격적 속도 행정의 가속화 -인재육성과 교육자치실현, 농림축수산업의 중흥을 통한 소득배가

‘낙후 탈출’ 최대 화두 ‘잘사는장흥’ 건설장담

■ 장흥군수

우리당·민주당·무소속후보 각축

지역 발전·SOC 조기 확충 공약

전남도내 다른 중남부권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개발이 더뎌 ‘낙후 탈출’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무소속인 현 군수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무소속 후보 4명이 도전장을 냈으나 유력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점중 후보는 전남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농축산전문가. 공천잡음에 반발 민주당을 탈당한 뒤 여당 공천을 받은 그는 “중앙정부의 전폭 지원을 이끌어내 부강한 장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탐진강에 야간경관조명·음악분수대를 설치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친환경쌀·한우·표고 등 5대 전략산업 육성과 안양~관산~회진~대덕간 해양관광라인 구축 등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담은 ‘장흥미래비전 2020’을 내세워 표밭갈이에 나섰다.

민주당 김 성 후보는 6·7대 전남도의원을 지내 지방행정에 밝은 것이 강점. 그는 “지금까지 군의 역점사업들은 소득과 연결되지 못한 채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당선되면 민관합동투자유치위원회 구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부터 활성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쌀농업·시설원예·축산업·수산업을 4대 전략산업으로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남진권·수문권·보림사권 등 3대 권역별 문화관광산업을 집중육성하며 주민참여자치를 실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무소속 김인규 현 군수는 광주지검 장흥지청장과 변호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 김 후보는 “지난 4년간 푸른 장흥, 건강휴양촌, 친환경농업·생태체험 메카를 만들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 실현해왔으며 도덕성과 추진력 등에서 군민들의 검증을 받았다”며 재선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생산·가공·유통·관광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혁신농촌 건설과 웰빙산업 육성, SOC 조기 완공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역시 무소속으로 장흥군의회 의장을 지낸 백광준 후보는 “20일간의 국책사업 유치 단식투쟁에서 보여줬듯이 장흥발전을 위한 경제군수가 되겠다”며 장흥~회진 4차선 도로와 실버타운 건설을 강조했고, 언론인 출신인 황정렬 후보는 시장개방에 대비 농업생산·가공·유통의 일체화를 위한 민관합작 전문유통공사 설립과 복합가공공장 건립, 소외계층 복지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재정자립도 확대 경제살리기 과제

■ 보성군수

보성 발전 예산확보 적임자 자임

‘녹차수도’·500만 관광객시대 열어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고용 창출

‘녹차산업’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쌓아왔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보성-벌교간 개발 격차와 인구 감소, 10%대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차기 단체장이 풀어야할 과제다.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하승완 현 군수를 민주당 정종해 후보가 거세게 추격하는 양상이다.

무소속 하승완 후보는 국민학교 졸업 후 일용노동자로 15년여를 전전하다 법원서기보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 단순농업에 머물던 녹차를 산업화해 보성을 ‘대한민국 녹차수도’로 만들었고, 연간 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한다. 하 후보는 “벌교소도읍 육성과 태백산맥무대 개발, 보성읍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꼬막, 삼베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정 분야나 지역에 대한 예산편중 지적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 없으면 어느 분야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3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정종해 후보는 30여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기획예산처 등 예산부서에서 근무해온 예산행정전문가. 정 후보는 “정부예산을 끌어오려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보성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의 적임자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정부로부터 노인복지 시범사업군으로 지정받아 새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예산을 35% 이상으로 늘려 농가소득 향상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교육환경을 개선해 이농을 막고 지역균형 개발에도 힘쓰겠다는 각오다. 현 군수보다 인지도는 낮지만 밑바닥에 깔린 민주당 지지세를 결집시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김종표 (주)기전윈텍 회장도 2002년에 이어 재도전에 나섰다. 한미준 소속의 김 후보는 “12개 읍·면에 2~3만KW급 태양광·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경제살리기와 관광육성, 고용창출’의 3대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고장을 만들고 보성 벌교간 대립 해소에 역점을 둔다는 포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보성=안구일기자 giahn@kwangju.co.kr

‘CEO 단체장’ 면모 과시 “강진발전 위해 다시봉사”

■ 강진군수

황주홍 현 군수 재신임 투표될 가능성

관광산업·스포츠 마케팅 강화 공약

군수 선거를 보름남짓 앞두고 있지만 강진에선 선거분위기를 감지하기가 힘들다.

2004년 10·30 재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황주홍 현 군수가 ‘클린 행정’과 강한 추진력, 높은 군정 지지도 덕택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주해온 것이 다른 후보들의 도전의사를 무디게 만든 탓인지 현재까지 등록한 예비후보는 황 군수가 유일하다.

공식 후보자등록(16~17일)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대로라면 사실상 현 군수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되기 쉽다. 단독 후보라 할지라도 ‘무투표 당선’은 없고 투표를 거쳐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미 미주리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대선기획팀장과 국회 정책연구위원실장, 건국대 교수를 역임한 황 후보는 ‘누구보다도 정직한 정치와 깨끗한 행정을 추구해왔다’고 자부한다.

군수 취임 직후부터 군정 수행 소감과 출장보고서 등을 담은 ‘군정일기’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왔고 인사와 사업시행에서도 ‘새로운 군수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행자부 ‘지방자치대상’ 수상과 ‘혁신선도지자체’ 선정 등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1년반동안의 짧은 기간에 성전리조트호텔과 도암골프장, 태양광발전소 등의 투자를 성사시켰고, 100개팀에 이르는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둬 ‘CEO형 단체장’의 면모를 과시했다.

선거 단골 공약이었음에도 표류해왔던 강진읍~마량간 4차로 확포장 예산을 여야 국회의원을 끈질기게 설득해 확보해낸 것은 ‘열정의 산물’로 꼽힌다.

황 후보는 “공무원과 주민, 주민과 주민간 분열을 극복하고 화해를 이뤄낸 것이 성과”라며 “희망의 새싹이 트기 시작한 장흥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공천잡음과 정당공천제를 비판하며 ‘민주당 공천 자진반납과 무소속 출마’를 검토해왔다가 ‘민주당 잔류’를 최종 결정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강진=이병철기자 mood@kwangju.co.kr